

‘붉은 산수’로 풀어낸 분단의 상흔, 시대의 기억



작품 앞에 선 이세현 작가.

이세현 특별전 ‘Beyond Red-기억중독’...오는 10일부터 동곡뮤지엄

기억·감정의 순환 구조...‘금기의 색’으로 응축해 낸 굴곡진 아픔
상실·단절이 빚어낸 사유의 확장, 존재의 근원성·무한 세계 탐구

전쟁과 분단, 개인적 상실과 우주적 사유를 한 가지 색으로 응축해온 이세현 작가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붉은 산수’의 흐름과 확장된 세계를 펼쳐낸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은 개관 5주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세현을 초청해 광주·전남 첫 개인전 ‘Beyond Red-기억중독’을 개최한다.

전시 제목의 핵심 개념인 ‘기억중독’은 기억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다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순환 구조를 뜻한다. 사회적 사건부터 개인의 상실까지 서로 얽혀 생성된 붉은 풍경의 층위를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세현은 전통 산수화 방식에 현대적 시각을 더해, 자연 풍경을 넘어 전쟁과 분단, 상실의 기억을 화면에 쌓아온 작가다.

그의 ‘붉은 산수’는 군 복무 시절 야간투시경으로 본 비현실적 풍경에서 출발했다. 그의 그림은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장면을 바탕

으로 시대의 상처를 하나의 색에 응축한 회화 세계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표 연작 ‘비트윈 레드’(Between Red)와 ‘비욘드 레드’(Beyond Red) 약 30여 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비트윈 레드’는 DMZ, 철책선, 감시초소 등 분단의 지형을 붉은색으로 기록하며 한국 현대사의 상흔을 드러낸 작업이다. 한동안 ‘금기의 색’이었던 ‘붉은 색’을 다시 꺼내 정치·사회적 폭력과 시대의 비극을 조형적으로 보여준 초기 대표작이다.

반면 ‘비욘드 레드’는 붉은 산수의 시선을 사회적 현실에서 더 넓은 감정과 우주적 사유로 확장한 연작이다.

별빛, 은하, 바다, 고향의 풍경,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흔적 등 개인적·정서적 이미지가 화면을 채우며, 상처 너머 존재의 근원성과 세계의 무한함을 탐구한다. 고향 상실과 유년의 단절 같은 오래된 기억이 자연·우주의 이미지로 다시 번역



‘Beyond Red - 024SEP01’



‘Between Red - 016AUG01’

된 전환점이기도 하다.

두 연작은 전쟁과 분단의 역사적 풍경에서 출발해 존재·감정의 풍경으로 나아가는 붉은 산수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눈을 감은 인물 초상 약 30점과 드로잉·습작 70여 점이 더해져, 작가의 사고 과정과 조형적 탐구가 아카이브처럼 펼쳐진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가 ‘마음의 고향’이라 말해온 광주에서 여는 첫 개인전으로 의미가 깊다. 대학 시절 마주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그의 예술관을 결정적으로 형성한 경험이었고, ‘예술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남

겼다. 이번 전시는 그 출발점과 확장된 세계를 함께 보여주는 자리다.

개막 당일인 10일에는 작가가 참여하는 아트 토크도 진행된다. ‘붉은 산수’의 형성 배경, 작업에 스민 기억의 의미, 최근 확장된 사유의 흐름을 작가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은 “한때 금기의 색이던 ‘붉은색’이 예술가의 손에서 상처를 넘어 회복과 사유의 색으로 되돌아온 뜻깊은 전시”라며 “관람객들이 깊은 감동과 성찰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상호 교차된 기억으로 엮어낸 관계의 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선 속에서 서로를 엮고, 몸은 그 관계의 결을 기억하며, 움직임은 다시 그 기억들을 교차시켜 하나의 그물을 짠다. 매듭은 단지 묶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구조다.”

댄스컴퍼니 썬앤프렌즈(Sun&Friends)가 신작 ‘3인 3색-댄스커넥션’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무대 위에 펼친다.

제31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 단체인 이들이 선보이는 작품 ‘매듭-The Body Weaves’가 오는 6일 오후 5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다.

관계의 구조를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시선으로 해석해온 대표 선유라의 예술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여기에 K-예술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테이지파이터’에서 활약한 현대무용수들이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작품은 ‘매듭’을 축으로 한 3개 장면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매듭은 시선의 구조다. 사람과 사람

댄스컴퍼니 썬앤프렌즈 ‘3인 3색-댄스커넥션’...오는 6일 북구문화센터



댄스컴퍼니 썬앤프렌즈 공연 모습

사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통째·규율·사회적 시선이 관계의 첫 묶임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두 번째 매듭은 몸의 기억을 따라간다. 드러나지 않는 감정의 실들이 신체 안에서 교차하며 관계의 질감으로 남는 과정을 움직임으로 보여준다.

세 번째 매듭은 공동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연결의 패턴이다. 매듭은 하나의 실이 아닌, 여러 몸과 기억, 시선이 교차하며 형성되는 공동체적 구조로 확장된다.

‘매듭’이라는 주제로 나누어진 ‘3인 3색’ 무대는 총 3장으로 이어지며, 각각의 감각과 움직임이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이며,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긴긴밤, 지평선을 찾아 떠나는 여정

ACC재단, 5-6일 판소리 음악극 ‘긴긴밤’ 무대...예술극장 극장2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교황소 노든과 어린 뽕깰,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의 여정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예술극장 극장2에서 판소리 음악극 ‘긴긴밤’ 공연을 선보인다.

제2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작가 루리의 동화 ‘긴긴밤’을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판소리와 연극, 움직임,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종합 가극극이다.

공연은 상실과 회복, 연대의 의미를 따뜻하게 그려낸다. 작품의 서정적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판소리의 서사적 리듬과 연극적 표현, 음악적 구성미를 결합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을 전한다.

공연은 소리꾼의 시선에서 출발하는 일반적인 판소리와는 달리 고수로부터 시작해 소리꾼 이승희와 배우 이상홍이 교차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여기에 고수 이향하와 이유준



긴긴밤 공연 모습

의 음악을 더해 원작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이면뿐 아니라 삽화의 감성적 정서까지 무대 위에 섬세하고 다채롭게 그려낸다.

특히 ‘긴긴밤’은 2022 수립뉴웨이브 수상, 2023 국립정동극장 ‘세실 창작ing’ 선정 등을 통해 작품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공연은 5일 오후 7시30분, 6일 오후 3시와 7시 총 3회 진행하며 관람료는 2만원이다.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365일 관리

✓가족구성 가능

✓사용기한 없음

✓전문 이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CMYK